

# "고학력화"는 빈곤을 감소시켰는가? 1985년~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김 수 정\*\*

(2008.12.25. 접수 / 2009.01.13. 1차수정 / 2009.01.23. 게재확정)

- 요약 -

이 연구는 1985년에서 2006년 동안 한국사회의 고학력화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기별, 교육수준별 빈곤을 분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빈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분포효과’(고학력화로 인한 분포 변화 효과)와 ‘불평등효과’(학력별 빈곤위험의 증가)로 분해했으며 자료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집단에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이후 모든 집단에서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후 교육집단별로 빈곤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간격도 벌어지면서 집단별 빈곤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교육 분포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였지만, 위기 이후 대졸자를 포함한 모든 학력에서 빈곤위험이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07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수행한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여유진 외, 2007) 연구 중 일부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신 세분의 익명의 논평자께 감사드린다.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ksujeong@dau.ac.kr)

증가했고 이는 빈곤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강력한 불평등효과). 1995년 이전에는 분포효과가 크고 불평등효과가 작았지만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 관계가 역전된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분포효과의 유리함을 거대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가 상쇄함으로써 하위집단별 빈곤이 큰 비율로 증가했다. 셋째, 경제위기 전후 빈곤율 급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졸자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고 빈곤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고학력화는 저학력 집단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중등학력의 저학력화”를 낳았다. 대졸자의 경우, 분포효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불평등 효과는 1995년 대비 2006년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위기는 대졸자의 유리함을 감소시켰고 이들 역시 빈곤위험에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고학력화 분포효과 불평등효과 빈곤율분해 빈곤격차

## 1. 연구문제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했다. 1981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졸업정원제와 1996년 대학정원 자율화 등 지난 20년간 진행되어온 고등교육 확대 정책은 한국의 대졸자 수를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시켰다. 1985년 대졸자(전문대졸 포함)의 수는 19만여 명에 불과했던데 비해 20년 후인 2004년 50만을 넘어서 2.5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82%가 대학(전문대포함)에 진학해 이제 대학교육 자체는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보편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sup>1)</sup>.

한국사회에서 고학력은 빈곤탈출은 물론 성공과 출세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다. 또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가 경제발전과 사회평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위 ‘발전주의적’ 고등교육확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를 고학력 사회로 변화시켰다(김영화, 1993; 장수명, 2002).

본 연구는 이처럼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과 빈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선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빈곤은 교육투자를 제약하고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저학력을 낳고, 반대로 낮은 교육수준은 좋은 직업,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에의 접근을 제약하기 때문에 빈곤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생애주기나 세대구조를 살펴본다면 교육과 빈곤은 연쇄적 대물림의 구조를 갖는데, 부모의 빈곤은 아이들의 교육박탈로 이어지고 빈곤한

---

1) 한국교육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일반고는 졸업생 71.1%가 4년제 대학에, 15.6%가 전문대에 진학했고,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졸업자도 4년제 대학에 24.7%, 전문대에 46.4%가 진학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가정의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생애주기 내내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된다(구인회, 2003; McLanahan, 1985; Duncan & Brooks-Gunn, 1997a). 따라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세대 이상을 포함한 추적 연구가 필요하며, 가족 및 개인수준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득정보가 충분히 축적된 자료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최근 패널조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지만 고학력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지난 20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범위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동일 세대 수준에서 개인의 교육성취와 빈곤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개별시점에서 개인의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집합적인 수준에서는 어떠한 빈곤의 지형도를 만들어내는지, 또 장기적인 시계열 속에서 이 지형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시기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0년이다. 이 시기 동안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지난 20년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위기로 굴절되어 있는데, 1990년대 말은 대량실업과 빈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통해 우리사회 빈곤층의 성격과 구성을 변화시킨 변곡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신욱 외, 2006) 따라서 1985년에서 현재까지 시기를 아우르는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역시 주요 관심사이다. 물론, 경제적, 사회적 격변의 와중에도 계층상승의 정당한 경로로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은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쟁적으로 가속화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취업란, 대졸 실업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실업율의 고학

력화<sup>2)</sup>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과연 고등교육 확대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삼스럽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은 개인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주는가? 고학력은 빈곤 위협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해왔는가? 또, 고학력화는 빈곤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sup>3)</sup>

우리사회에서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학력성취, 노동시장진입, 임금 등을 차별화하며 계층지위의 세습을 낳는 요인으로 작동해왔다는 점을 밝혔다.

방하남, 김기현(2001)은 블라우와 던컨의 지위획득모형을 이용하여 본인의 현재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세대의 기회 불평등(부친의 교육)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매개로 자녀의 직업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학력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하남, 김기현(2003)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진학여부에 의한 계층화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학경로(인문계/실업계, 일반대/전문대)와 같은 질적인 차원에서는 계층화가 구조화되고 있어 사회계층간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수(2000)는 학교-직장 이행과정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학력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계급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중노동시장구조 하에서 고학력화는 중등학력과 고등학력의 교육효과를 더욱 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통계청에 따르면 고졸 이하 실업자 수는 2000년 30만1000명에서 2006년 20만 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 실업자수는 12만9000명에서 15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실업자 중 대졸자 비중은 2000년 30%에서 2006년 42.9%로 증가한 상태이다(KOSIS).

3) 한국사회의 고학력화 경향과 노동시장 진입과의 연관을 분석한 글로는 장상수(2003)을 참조할 것.

장미혜(2002)는 부르디외의 이론에 기초해서 부모의 사회적 계급과 자녀의 교육적 성취사이(수능성적)의 관계를 중재시켜주는 문화자본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중간계급 출신의 부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학력자격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왔기 때문에 자본가계급과는 달리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계급적 특권을 세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밝혔다.

이처럼 교육효과를 밝히는 기존 연구는 주로 임금, 자녀의 직업지위나 계층지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계급구조의 재생산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 교육계층화, 계층효과를 분석해왔고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는 종단적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빈곤문제와 관련해보았을 때 “고학력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고학력화”는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Chang, 2001)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처럼 고학력화 과정 역시 그 진행속도나 범위에 있어서 급속하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다른 사회보다도 짧은 시기에 돌진적으로 이루어진 “고학력화”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소득변수를 포함한 장기시계열 자료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빈곤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교육은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과 함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논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인의 교육성취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탈빈곤을 위해서는 학력자체와는 상관없는 직업교육이나 기술훈련과 같은 것에 방점이 두어지게 된다. 또, 방법론적으로는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여러 선행변수와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결정의 기제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블라우와 던컨의 지위획득 모형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교육기회와 교육성취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영향을 받고, 또 교육은 직업지위를 매개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Blau and Duncan, 1967) 또 다시 개인의 소득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처럼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복잡한 영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박경숙, 2006; 방하남·김기현, 2001) 개인의 교육수준, 교육지위는 단지 교육연수나 졸업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과 연동하는 깊은 구조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 연구는 1985년부터 2006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로 빈곤위험이 어떻게 차등화되었는지 교육수준별 빈곤지표를 살펴본다. 빈곤지표(빈곤율, 빈곤갭, FGT 지표)를 교육수준별로 구성하여 교육수준과 빈곤의 관계가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 교육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오랫동안 교육기회가 제한되었고 고학력기회는 남성에 의해 선점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성취는 성별로 분절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젠더효과). 또, 고등교육확대 이전 시기를 살았던 고연령층의 학력과 취업경험은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연령효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우 서울에 고등교육기회가 집중되어 있고 소득기회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서울로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 농촌에 있어 교육분포는 큰 차이를 보인다(지역효과). 요컨대,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 살펴보고 이것이 20년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고학력화는 고학력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낮추고 저학력자의 불리함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고학력화가 진행되기 이전 대졸자가 갖는 유리함을 다수가 대졸자인 사회에서는 누리기 어렵다. 반면, 20년전 고졸학력은 사회적 평균을 웃도는 것이었지만 다수가 대졸자인 사회에서 고졸자는 교육약자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고학력화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고학력집단일 수록 빈곤위험이 낮기 때문에 고학력화는 빈곤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빈곤지형을 변화시켰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IMF외환위기 이후의 경제현실이 웅변하듯이 학력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학력화 과정에서 저학력자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며 고학력자 내부에서도 소득불안정과 빈곤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빈곤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에서 변동은 두 가지 차원, 즉 교육 분포의 변화에 따른 빈곤위험의 변화 그리고 각 교육수준별로 노출되는 빈곤위험계수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분포효과’(고학력화로 인한 분포 변화 효과)와 ‘불평등효과’(학력별 빈곤위험의 증가)로 분해해서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특히 경제위기는 교육수준별 빈곤율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이다. 그렇다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셋째,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로 나누어본다면, 지난 20년동안 분포 및 불평등효과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2. 자료 및 분석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85년부터 2006년 도시가계조사이다. 도시가계조사는 1982년부터 생산되었는데, 이 연구는 1985년부터 5년 간격으로,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고등교육 확대정책의 출발시점을 1981년 졸업정원제로 본다면 1985년은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고학력화 정책이전의 과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985년은 시작시점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또, 이 다섯 개의 시점 중 1995년까지 세 시점은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고, 2000년과 2006년은 위기 이후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자료가 가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한 해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전국 가구 대표도는 35.2% 수준에 불과하다(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sup>4)</sup>. 또 1인가구, 농어촌가구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석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

4) 1988년 이전의 통계청 도시가계자료의 경우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의 자료와 단절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부득이하게 1985년 자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도시가계자료가 급격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에서 시계열적으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 변화의 폭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전국가계조사로 전환되면서 도시뿐 아니라 전국을 포괄하는 자료로 확대되었지만 이전 시점과 비교를 위해서 2006년 자료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추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을 비롯한 개인변수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빈곤율 역시 가구빈곤율을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빈곤선은 일차소득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사용되지만, 교육의 효과는 사회보장이전이 이루어진 가처분 소득보다는 일차소득(primary income)<sup>5)</sup>을 통해 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절대빈곤선을 포함하지 않고 상대빈곤선만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절대빈곤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데 1999년 이전에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시가계조사에서 교육변수는 시기별로 다른 방식으로 코딩되어 있는데, 1985년에서 89년기간은 교육년수로, 1990년에서 1997년 기간은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학년별 재학중퇴졸업여부를 반영해 세자리 코드로 입력되어 있으며, 1998년 이후에는 학년을 대신해서 계열이 포함된 세자리 코드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변수의 통일성을 높이고 학력별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이상의 4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는데, 대졸이상의 경우는 졸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다른 학력의 경우는 중퇴나 재학, 휴학등을 포함해 학력 구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

5) 일차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을 더한 것이다.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85년처럼 교육년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따라 분류하였다<sup>6)</sup>.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은 성, 연령, 지역이다. 먼저 성별 분류는 “가구주의 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시가계조사의 특성상, 1982년부터 1997년 기간의 자료에서 배우자나 기타가구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가구주가 아닌 개인수준, 특히 여성배우자의 경우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분석단위가 가구주 개인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성별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고 학력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빈곤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로서 성별 변수의 영향력은 여성 ‘가구주’라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연령의 경우, 노인가구나 미성년가구의 빈곤영향력을 제외하기 위해 20-59세로 통제하였고 10세기준으로 연령대를 4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의 경우 현재의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서울/비서울(기타지역)의 구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빈곤과 관련하여 가족형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 가족형태를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신뢰도도 떨어진다. 최근 자료의 경우 배우자를 비롯한 가구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과거자료는 배우자유무 조차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적 특징은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

6) 1985년에서 1989년기간의 교육코드는 졸업여부가 없이 현재 재학중이거나 중퇴자인 경우 바로 전학년의 코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의 경우 전문대졸의 학력역시 구분하기 어려운데, 코드북에 따르면 교육기간 14년, 대학 2학년일 경우 전문대로 표시되어 있다. 85년자료에서 교육은 9년까지 중졸, 12년까지 고졸, 14년까지 전문대졸, 그 이상은 대졸이상학력으로 구분되었다.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졸이상’ 범주는 대학 4년 이상이고 졸업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 3. 고학력화와 학력별 빈곤율의 변화(1985-2006)

#### 1) 가구주의 고학력화

1985-2006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주의 학력분포는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년간 저학력(중졸)의 비중은 37.3%에서 15.1%로 크게 감소했고 반면 고학력(대졸)은 17.0%에서 31.4%로 크게 증가했다. 중졸자와 대졸자간의 비중 교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20-59세 가구주의 학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졸학력이다. 고졸자 비중은 1985년 41%였고 1990년 중졸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를 흡수한 효과가 고졸자의 상대적 증가로 나타난다(46.4%). 지난 20년동안 고졸 가구주의 규모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06년 현재 40.3%이다.

<표 1> 연도별 가구주(20-59세) 학력분포

(단위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중졸	37.3	28.2	22.8	19.0	15.1
고졸	40.9	46.4	42.9	43.5	40.3
전문대졸	4.8	8.6	9.2	11.7	13.2
대졸	17.0	16.8	25.0	25.8	31.4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도시가계조사자료 각년도.

<표 1>의 해석에서 유의할 것은 고졸자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체 분포로 본다면 고학력화 과정에서 2006년의 고졸자는 과거 중졸자의 지위와 유사한 교육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의 고졸자의 교육지

위는 하락하여 상대적인 “저학력자”로 바뀌었다. 반대로 대졸자의 경우 85년에는 80대 20에서 20에 속하는 특권층이었으나, 현재는 가구주의 1/3이 대졸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고학력화는 대졸 고학력자의 증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분포의 상향이동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2)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의 변화

1982년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율 측정지표인 Foster, Greer and Thorbecke(1984)의 빈곤율, 빈곤갭, 빈곤심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 ① 빈곤율 Headcount index:(P0)

$$P_0 = \frac{N_p}{N}$$

(  $N_p$ : number of the poor  $N$ : total population)

### ② 빈곤갭 Poverty gap index: (P1)

$$P_1 = \frac{1}{N} \sum_{i=1}^N \frac{G_i}{z}$$

$$G_i = (z - y_i) \cdot I(y_i < z).$$

(z: poverty line) ( $Y_i$ : dpi) ( $I$ : ()안의 표현이 참이면 1, 아니면 0값)

③ 빈곤심도 poverty severity index(P2)<sup>7)</sup>

$$P_2 = \frac{1}{N} \sum_{i=1}^N \left( \frac{G_i}{Z} \right)^2.$$

일차소득에 상대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전체 빈곤율은 1995년까지 서서히 줄어들고,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2>, <그림 1>). 교육과 관련하여 본다면, 95년까지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간의 빈곤율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압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95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집단에서 빈곤율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간격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졸이하 집단은 1995년까지 빈곤율이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크게 증가하여 2006년 중졸학력자의 1/4이 빈곤층에 속한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학력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는데 대체로 2006년 현재 1985년에 비해 2배이상 빈곤율이 증가했다. 빈곤갭과 빈곤심각성 지수 역시 비슷한 변동을 보이는데,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1995년까지 빈곤갭이 감소하다가 다시 2006년에 오면 크게 증가하며,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1995년과 2006년 사이 빈곤갭이 2배정도 증가했다.

다섯 개 시점을 두고 보았을 때 1990년과 1995년의 빈곤율 분포는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물론, 1990년에 비해 1995년 전체빈곤율이 감소했고 대졸자의 상황이 약간 유리해지긴 했지만 다른 시기에 비해 이 두 시기간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교육과 빈곤의 관계만을 두고 보았을 때, 다른 시기에 비해 1990년대 초반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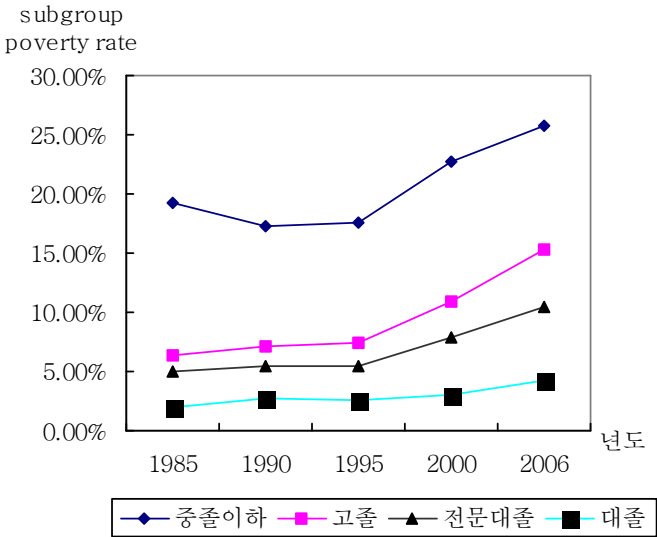
7) weighted sum of poverty gap index: 빈곤선 이하 중에서도 극빈층에 weight를 부여함으로써 빈곤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한 추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시기에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교육수준별 빈곤율, 빈곤갭, 빈곤심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전체	빈곤율	0.103	0.091	0.083	0.108	0.127
	빈곤갭	0.034	0.030	0.025	0.034	0.045
	빈곤심도	0.017	0.017	0.012	0.018	0.024
중졸이하	빈곤율	0.192	0.173	0.176	0.228	0.257
	빈곤갭	0.067	0.053	0.053	0.072	0.091
	빈곤심도	0.033	0.029	0.025	0.036	0.050
고졸	빈곤율	0.063	0.071	0.074	0.109	0.153
	빈곤갭	0.019	0.024	0.021	0.032	0.053
	빈곤심도	0.010	0.014	0.011	0.017	0.029
전문대	빈곤율	0.051	0.054	0.055	0.079	0.104
	빈곤갭	0.015	0.017	0.016	0.029	0.035
	빈곤심도	0.007	0.010	0.009	0.018	0.019
대졸이상	빈곤율	0.019	0.028	0.025	0.030	0.042
	빈곤갭	0.009	0.010	0.008	0.011	0.015
	빈곤심도	0.006	0.006	0.005	0.007	0.009

[그림 1] 교육수준별 상대빈곤율 변화(1985-2006)



### 3) 성, 연령, 지역의 효과

#### (1) 성, 연령, 지역별 빈곤율의 변화

교육과 더불어 성, 연령, 지역은 한국 사회 빈곤을 차별적으로 구조화하는 주요변수이다. 성별의 경우, 기존연구에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에게 비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석재은, 2004; 김수정, 2007), 도시근로자 가구 20세-59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전 시기에 걸쳐 남녀비가 4-5배정도로 더 높게 나타나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표 3>). 지난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가구주가구의 경우 95년에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였고(5.6%), 빈곤율이 다시 상승한 2000년 이후에도 85년 상황과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우호적이었던 90년대 초반 빈곤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직후라고 할 수 있는 2000년의 경우 빈곤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전 시점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데 비해 2006년에는 36%로 크게 증가하였다<sup>8)</sup>.

연령대별 빈곤율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중반에 모든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이며,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이다. 전시기에 걸쳐 40대보다 30대의 빈곤율이 낮고, 50대의 경우 95년 이전에는 40대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빈곤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고 2차항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되는데, 연령구간을 나누어보았을 때 20대가 높고 30대가 낮고 40대는 다시 높아지고 50대는 다시 낮아지는 3차항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노동시위가 불안정한 연령대인 20대에 가구주가 된 경우 빈곤위험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30, 40, 50대의 빈곤율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와 세대변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95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경우 90년이 최저점이고, 그 이후의 시기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50대의 경우 90년까지는 40대 빈곤율보다 1-2% 정도 높지만, 95년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 40대보다 낮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경우, 전시기에 걸쳐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의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다. 시기별로는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1995년까지 빈곤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난다.

1985년과 2006년 시기를 종합적으로 개관하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교육, 성, 연령, 지역 변수의 모든 하위 범주들에서 빈곤위험

---

8) 이는 경제조건의 악화 뿐 아니라 인구학적 변화의 효과가 중첩된 결과이다(김수정, 2007).

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1985년보다 2006년의 빈곤위험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표 3〉 성, 연령, 지역별 빈곤율 변화

(단위: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전체	10.3	9.1	8.3	10.8	12.7
교육수준					
중졸이하	19.2	17.3	17.6	22.8	25.7
고졸	6.3	7.1	7.4	10.9	15.3
전문대	5.1	5.4	5.5	7.9	10.4
대졸이상	1.9	2.8	2.5	3.0	4.2
성별					
남자	7.5	6.3	5.6	7.5	7.9
여자	32.7	33.7	27.2	28.1	36.0
연령별					
20대	9.9	11.8	10.4	11.6	13.9
30대	9.5	8.0	7.0	10.2	11.9
40대	11.4	8.6	10.3	11.3	13.4
50대	12.6	10.2	6.8	10.8	12.6
지역별					
서울	8.9	7.7	6.0	9.1	10.3
기타지역	11.2	9.9	9.4	11.6	13.6

(2) 교육수준별 성, 연령, 지역 효과

교육과 성별을 교차했을 때, 중졸을 제외한다면 남성가구주에게는 전 학력구간에서 빈곤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표 4>). 특히하게도 남성가구주의 경우 2000년 이후에도 중졸과 고졸학력의 빈곤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가구주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중졸, 고졸의 빈곤위험에 차이가 거의 없고 둘다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인다.

교육과 연령을 교차했을 때, 2006년 20대 중졸자의 빈곤위험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높다 (56.2%). 중졸이하의 빈곤위험이 25.7%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배 이상의 빈곤위험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이 점은 샘플에 20대 중졸 학력의 가구주가 32명으로 매우 적게 대표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러나 고학력화 현상을 고려한다면 젊은 연령층에서 중졸 가구주의 수는 앞으로도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빈곤발생 케이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학력구조가 고도화된 사회에서 중졸학력과 같은 교육중단은 개인적, 가족적 수준에서 불리한 조건에 의해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점차 중졸학력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저학력자일수록 서울지역에서 빈곤율이 낮고 기타지역에서 빈곤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1985년 서울지역 중졸 빈곤율이 19.4%, 고졸 빈곤율이 6.0%이고 기타지역이 각각 19.5% 6.5%로 유사했지만, 2006년에는 서울이 21.7% 14.2%, 기타지역이 26.8%, 15.6%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저학력자의 빈곤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5년 지역의 저학력자의 빈곤위험이 감소하던 추세가 경제위기로 인해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기 이후 동일수준의 저학력일지라도 지역거주 저학력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진 경향성을 보여준다.

〈표 4〉 교육수준별 성, 연령, 지역 빈곤율

(단위: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성별 남자	중졸이하	14.4	12.0	11.4	17.2	16.3
	고졸	4.9	5.4	5.6	7.8	9.6
	전문대	2.6	3.5	3.6	6.7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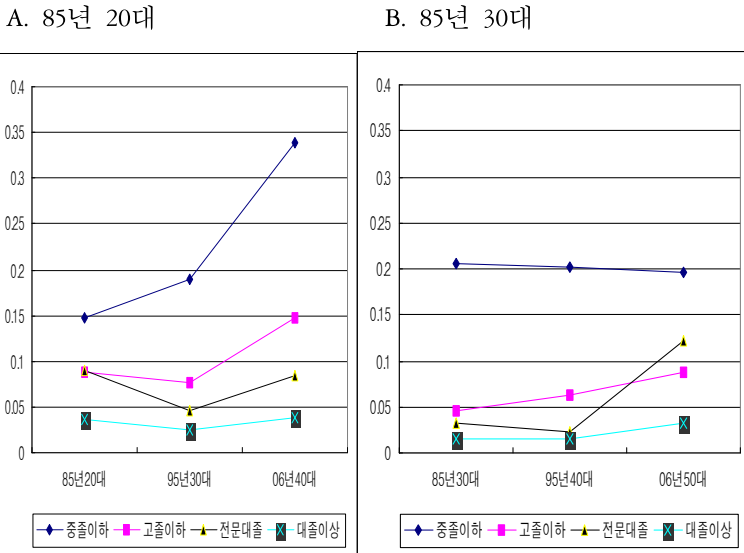
여자	대졸이상	1.7	1.7	2.1	2.8	3.2
	중졸이하	41.7	42.5	34.9	31.2	41.4
	고졸	21.5	25.9	23.8	32.3	41.8
	전문대	26.3	28.1	19.7	17.6	29.1
	대졸이상	6.9	23.0	9.8	6.8	15.0
연령						
20대	중졸이하	14.7	16.2	18.9	24.4	56.2
	고졸	8.8	11.6	7.6	13.1	19.6
	전문대	8.9	11.7	4.5	11.2	10.7
	대졸이상	3.6	8.5	2.4	6.5	8.2
30대	중졸이하	20.6	19.0	18.9	32.8	32.5
	고졸	4.6	6.0	7.6	12.3	18.8
	전문대	3.2	2.9	4.6	8.9	11.2
40대	대졸이상	1.6	1.5	2.4	3.3	4.3
	중졸이하	19.2	15.6	20.2	23.5	33.9
	고졸	6.3	5.4	6.2	10.9	14.7
	전문대	5.1	2.0	2.3	3.1	8.5
50대	대졸이상	1.9	1.7	1.6	1.1	3.9
	중졸이하	20.6	17.8	12.5	18.5	19.6
	고졸	3.8	2.5	1.5	4.4	8.8
	전문대	5.9	2.0	1.5	1.8	12.1
대졸이상	1.9	1.6	0.7	2.9	3.2	
지역						
서울	중졸이하	19.4	14.7	16.8	21.5	21.7
	고졸	6.0	7.6	3.9	8.6	14.2
	전문대	8.4	4.3	3.4	10.5	9.2
	대졸이상	2.0	1.9	2.8	2.7	3.6
기타지역	중졸이하	19.2	18.4	17.3	23.2	26.8
	고졸	6.5	6.8	6.8	12.0	15.6
	전문대	3.3	5.8	5.8	7.0	10.8
	대졸이상	1.9	3.8	3.8	3.2	4.6

도시가계조사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는 아니다. 그러나 85년의 20대와 30대 연령집단을 연령코호트로 가정, 이들이 10년 후인 95년 30대,

40대가 되고, 20년 후인 40대, 50대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각 교육수준별로 빈곤위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실험해볼 수 있다 (<그림 2>). 예를 들어, 1985년에 대학을 다닌 20대 가구주 A가 당시에 경험하는 빈곤위험과 1995년 30대가 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빈곤위험, 2006년 대졸 40대가 가구주가 되었을 때의 빈곤위험을 비교함으로써 가상적으로 1980년대 20대 가구주의 생애주기별 빈곤위험을 구성해볼 수 있다.

[그림 2] 85년 20대, 30대의 교육수준별 빈곤위험 추이

(단위:%)



85년 20대의 경우 중졸학력은 빈곤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학력집단의 경우 95년에는 감소했다가 06년에는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85년 30대의 경우,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2006년에 빈곤율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 역시 2006년 샘플에서 전문대졸자의 빈곤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이터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2004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50대 전문대졸의 빈곤율이 6.3%로 크게 뛰어올랐다는 점에서 고학력 사회에서 고연령 전문대졸(85년 당시 전문대졸자수 73,927명) 근로자의 불리함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고학력화의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

##### 1) 빈곤율 변화 분해

###### (1) 분해방법

빈곤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교육의 효과는 두 가지 차원, 즉 두 시점 간 교육 분포의 변화로 인한 기여분과 교육집단별 빈곤위험 계수가 다르므로 나타나는 기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시점 T1과 T2에서의 빈곤율 변화는 빈곤을 설명하는 변수의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로 구분해서 설명될 수 있다<sup>9)</sup>. 분포효과란 학력분포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빈곤율이기 때문에 분포효과란 저학력자의 감소와 고학력자의 증가가 빈곤율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이다. 한편, 불평등효과란 각 교육계층에서 빈곤율이 변동할 때 전체적인 빈곤율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를 들어 저학력자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저학력빈곤층의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면 불평등효과는 (+)값을 갖게 되고, 고학력

9) 이시쿠라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고용패턴(정규직/비정규직 비율)변화로 인한 효과와 소득불평등효과(정규직/비정규직의 차등보상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Ishikura, 2007). 여기서의 설명은 이시쿠라의 예를 따른 것이지만,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 분해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Clogg, 1993; Kitagawa, 1964, 1955; Das Gupta, 1978).

빈곤층의 증가분이 고학력자인구의 증가분보다 적다면 (-)값을 갖게 된다. 불평등효과는 동일 학력층의 빈곤위험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 빈곤율 분해의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두 시점 간의 빈곤율 차이를 4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교육변수의 변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환이 필요하다. 두시점간의 빈곤율 차이는 각시점에서의 교육범주별 빈곤율 차이를 더한 값이다(Eq.1).

$$E_p^{t+1} - E_p^t = \sum_{i=m}^u (E_{ip}^{t+1} - E_{ip}^t) \quad (\text{Eq.1})$$

( $E_p^{t+1}, E_p^t$  해당시점에서 빈곤율,  $i = m$ (중등),  $h$ (고등),  $c$ (전문대),  
 $u$ (대학))

둘째, 두 시점에서 각 교육범주의 빈곤율 차이가 집단 $i$ 의 규모변화와 집단 $i$ 의 빈곤율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항 ( $E_i^{t+1}/E_i^t - E_i^{t+1}/E_i^t$ )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면 (Eq.2)와 같다. 이로써 각기 다른 두 시점에서 특정 교육집단의 빈곤율차이는 이 집단  $i$ 의 비율변화 (Eq.2의 좌측항)와, 두시점간 집단의 규모 변화를 고려한 집단의 빈곤율 증가분(Eq2의 우측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를 변화율(change rate)로 계산하면 (Eq.3)로 표현될 수 있는데, 두 시점간의 빈곤 변화율은 각 교육수준의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를 더한 값으로 구성될 수 있다<sup>10)</sup>.

10) Eq.3에서 우변의 첫 번째항은 분포효과, 두 번째 항은 불평등효과

$$\begin{aligned}
 E_{ip}^{t+1} - E_{ip}^t &= [E_{ip}^{t+1} - (E_i^{t+1}/E_i^t - E_i^{t+1}/E_i^t) - E_i^{t+1}] / E_{ip}^t * E_{ip}^t \\
 &= (E_i^{t+1}/E_i^t - 1)E_{ip}^t + (E_{ip}^{t+1}/E_{ip}^t - E_i^{t+1}/E_i^t) / E_{ip}^t
 \end{aligned} \tag{Eq.2}$$

$$(E_p^{t+1} - E_p^t) / E_p^t = \sum_{i=m}^u [(E_i^{t+1}/E_i^t - 1)E_{ip}^t / E_p^t + (E_{ip}^{t+1}/E_{ip}^t - E_i^{t+1}/E_i^t) / E_{ip}^t]$$

(i= m(중등), h(고등), c(전문대), u(대학))

## (2) 시기별 분해

1985년부터 5년 간격으로 빈곤율 변화(change rate)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시기별 빈곤증감율( $(E_p^{t+1} - E_p^t) / E_p^t$ )을 살펴보면, 1985년 대비 90년의 빈곤율은 11.7%(-0.117)감소하였고 2000년 대비 2006년의 빈곤율은 18%증가하였다.

85년부터 95년까지 빈곤율 변화는 주로 분포효과에 의해 주도되면서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다가, 95년을 정점으로 불평등효과가 빈곤율 증가를 주도하게 된다. 빈곤율 변화가 가장 큰 시기는 역시 경제위기의 효과가 극적이었던 95년에서 2000년 사이 기간인데, 이 시기에도 교육분포는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빈곤위험계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빈곤율 변화를 주도하였다.

구간을 10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85년 대비 95년의 빈곤율은 19.3% 감소하였지만, 95년 대비 2006년 빈곤율은 52.9%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교육변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해했을 때, 85년에서 95년 사이 -19.3% 변화율은 교육분포의 변화로 인해 기여분 -114.5%와 불평등효과로 인한 14.5%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빈곤감소를 19.3%는 교육분포가 유리하게 변동한 고학력 효과에 의해 압도적으로 추동되었고 이를 상쇄한 불평등 효과(학력군별 빈곤위험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 기간의 빈곤개선효과 대부분이 분포효과에서 기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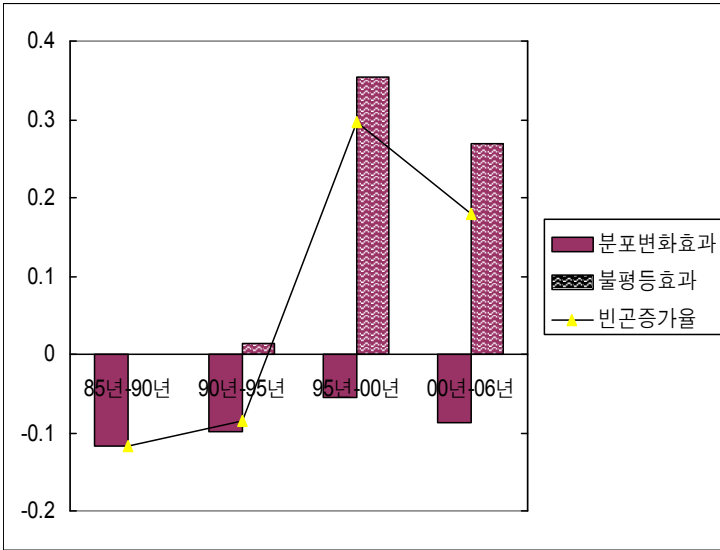
경제위기의 효과가 드러나는 1995년에서 2006년의 결과는 앞의 시기와 상반된다. 1995년 대비 2006년 사이 빈곤율은 크게 증가했는데 (1995년 8.3%, 2006년 12.7%, 52.9%증가율), 분포효과는 여전히 빈곤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지만 그 상대적 영향력은 미미하고, 불평등 효과가 빈곤율증가를 추동했다. 즉, 1995년 이후에도 고학력화는 빈곤감소에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면,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고위험화)가 빈곤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다시 말해 저학력자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이 집단의 경제적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고학력자는 증가했지만 고학력자 역시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함으로써 고학력화 고위험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년 동안 교육 분포(“고학력화”)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지만, 1995년 이후 불평등효과는 이 경향을 역전시켰다. 또한 95년 이후 불평등 효과가 극적으로 증가해 빈곤율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빈곤율 변화의 분해: 교육변수의 효과

	85년-90년	90년-95년	95년-00년	00년-06년	85년-95년 (경제위기 이전)		95년-06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 증감율	-0.117	-0.086	0.297	0.180	-0.193	(100%)	0.529
분포효과	-0.118	-0.099	-0.056	-0.088	-0.221	(114.5%)	-0.14	(-26.4%)
불평등효과	0.001	0.013	0.353	0.268	0.028	(-14.5%)	0.669	(126.4%)

<그림 3> 빈곤율 증감 : 분포효과와 불평등 효과(1985-2006)



### (3) 시기별 교육수준별 분해

교육수준별로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를 분해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먼저 1985년에서 1995년 빈곤율 감소는 중졸이하 저학력층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교육분포에서 중졸이하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고학력화로 인한 빈곤감소효과가 있었고, 또 이 집단의 빈곤위험도 10년전에 비해 감소했다. 중졸이하 다른 집단의 빈곤율 변화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저학력 집단에서의 빈곤감소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표 6〉 교육수준별 분포효과 및 불평등 효과의 변화(1985년-2006년)

1985-1995			
	분포효과	불평등효과	합계
중졸이하	-0.271	-0.037	-0.308
고졸	0.013	0.045	0.058
전문대	0.022	0.005	0.026
대졸	0.015	0.015	0.030
합계	-0.221	0.028	-0.193
1995-2006			
중졸이하	-0.163	0.148	-0.014
고졸	-0.023	0.381	0.358
전문대	0.026	0.077	0.103
대졸	0.019	0.063	0.082
합계	-0.140	0.669	0.529
1985-2006			
중졸이하	-0.414	0.095	-0.319
고졸	-0.003	0.350	0.346
전문대	0.041	0.069	0.111
대졸	0.027	0.069	0.096
합계	-0.349	0.583	0.234

두 번째 시기인 1995년에서 2006년 동안 중졸 저학력 집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전히 분포효과는 감소하고 있지만 분포개선효과를 불평등증가 효과가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졸자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빈곤율의 감소에 기여하지만(-16.3%) 중졸자인구의 감소분보다 중졸자의 불리함, 즉 중졸빈곤층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함으로써(14.8%) 분포효과를 상쇄한다. 경제위기는 모든 교육집단에서 빈곤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불평등효과를 크게 증가시켰다. 대졸을 포함해 모든 집단에서 불평등효과가 증가하고 있고 분포효과보다 불평등효과의 계수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기 빈곤율 증가를 주도한 것은 고졸자 집단이다. 고졸자의 분

포효과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지만 1995년에 비해 고졸빈곤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 시기 빈곤율증가의 2/3이상 (0.358/0.529 = 0.676)을 고졸집단이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위험이 증가했지만 빈곤율 증가는 고졸집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부분 위험계수의 증가는 “고졸의 불리함”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에서 10년간, 그리고 IMF경제위기가 포함된 1995년에서 10년간의 경향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고학력화는 불평등 개선과 관련하여 모순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전 10년간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중졸자의 빈곤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위기 전후 빈곤율 급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졸자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고 빈곤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고학력화는 저학력 집단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중등학력의 저학력화”를 낳았다. 대출자의 경우, 95년 이전과 이후 모두 슛적인 증가가 빈곤율을 약간 증가시키고 있지만 시기별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불평등 효과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95년 0.015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서 2006년 사이 0.063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대출자의 유리함이 감소하고 빈곤위험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부터 20년을 종합해보았을 때, 빈곤율의 증가(23.4%)는 분포 효과의 개선으로 인해 빈곤위험은 34.9%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불평등효과, 즉 각 교육집단의 빈곤위험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8.3%).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위기는 ‘고학력화’의 효과를 월등히 상회하는 강력한 경제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모든 학력집단에서 빈곤위험을 증가시켰지만, 고학력의 시대의 고졸집단의 경우 “상대적 저학력화”를 경험하였으며 다수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고졸학력가구주(40%)는 경제위기의 파국적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집단이었

음을 알 수 있다.

## 5. 요약 및 토론

본 연구는 급속한 고학력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고 분석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근로연령층에 있는 20-59세 인구샘플을 대상으로 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율 변화는 시기별 전체빈곤율의 변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1995년까지 모든 집단에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1995년 이후 모든 집단에서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교육집단별로 빈곤율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간격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집단별 빈곤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 연령, (거주) 지역은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조화하는 3대 통제변수라고 할 때,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교육과 빈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먼저 남녀 모두 중졸이하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아 다른 교육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남성가구주의 경우 중졸과 고졸 학력의 빈곤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여성가구주의 경우 2000년 이후 중졸과 고졸의 빈곤위험에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중졸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늘 35%에서 4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2000년 이후 고졸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급속히 높아져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남성가구주와 달리 여성가구주는 빈곤위험에서 학력순위가 종종 붕괴되곤 하는데, 여성가구주의 경우 학력 이외의 다른 요인, 즉 가족적 요인 등이 빈곤을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50대의 경우 전문대학력과 고졸학력의 빈곤순위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 전문대졸 샘플의 크기가 작고 집단 특성상 고졸학력과 전문대졸학력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고 다른 변수들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교육수준별 특징이 그대로 관찰되고 있다.

셋째, 교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포효과와 불평등효과로 나누어 본다면, 지난 20년동안 분포 및 불평등효과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지난 20년동안 교육분포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였지만, 빈곤위험의 증가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 시기별로는, 1995년 이전시기에는 분포효과의 크기가 크고 불평등효과(계수효과)의 크기가 작았지만 그 후에는 이 관계가 역전된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분포효과의 유리함을 거대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가 상쇄시킴으로써 하위집단별 빈곤이 큰 비율로 증가했다. 즉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고학력화의 빈곤개선효과는 상당정도 약화되고 오히려 각 교육하위집단별 빈곤위험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했다. 경제위기 전후 차이를 보면, 각 교육집단에서 빈곤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위험계수효과가 변화율의 126%(분포효과 -26%) 이상을 설명한다.

요컨대, 한국 사회 고학력화는 교육분포를 고도화시킴으로써 빈곤율을 감소시켜왔지만, 고졸자의 상대적 저학력화와 빈곤위험의 급증은 고졸자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또, 경제위기로 인해 대졸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집단의 빈곤위험이 상승하는 과정이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고등교육 자체의 빈곤방어력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로 복합적으로 빈곤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고학력의 빈곤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며, 적어도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고학력 자체만으로는 빈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사회 “고등교육을 향한 질주”에 고학력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경제적 불안정성, 위험의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년 동안 고학력화는 저학력집단의 상대적 규모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지만,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 같은 우호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전체적인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육집단에서 빈곤율이 증가했고 교육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빈곤위험은 더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의 고학력화가 빈곤과 관련하여 효과가 제한된 이유는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간의 제도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은 직업적 특정성이 낮아 소득과 연계효과가 낮고 고등교육 진학률은 높지만 산학협동체제가 부진하기 때문에 만성화된 고학력 실업을 낳고 있다. (장상수, 2000). 따라서 산업수요와 성장산업의 소요인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직업 및 대학교육체계의 개편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분절된 이중노동시장체제는 내부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경쟁적인 고학력화를 추동했지만, 2차적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임금차별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상태로 방치해왔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들의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내로 끌어안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시장유연화는 내부노동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직업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 결과 괜찮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

열해지고 ‘좁은문’을 통과하지 못한 청년실업자의 노동력 사장 문제, 청년층의 빈곤과 좌절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민간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및 취업알선 등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과 빈곤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노동시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대졸이상 범주 내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과 빈곤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대졸이후의 학력 차이는 고려되지 못했으며, 대졸자들 내부의 차이 역시 고려하지는 못했다. 특히, 대졸자가 다수가 된 사회에서는 고학력자체보다 학벌, 즉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대학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이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학력수준만을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지방대학 등 대졸자 내부의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동원해 좀더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한계상 전문대졸과 관련된 지표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또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고졸과 대졸 사이에서 전문대졸은 어떤 시기에는 고졸과 유사하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대졸과 유사하다. 전문대 졸업자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전문대졸의 학력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신옥·여유진 김진옥 김태완 최현수 임완섭. 《우리나라의 빈곤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06-53.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pp.5-32.
- 김수정. 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pp.93-133.
- 김영화. 1993. 《한국의 교육불평등: 고등교육 팽창의 과정과 결과》. 교육과학사.
- 박경숙. 2006. 빈곤개념과 생애사의 교차. 박경숙 편, 《삶의 기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과 의식》. 동아대 출판부.
- 방하남 외. 2004. 현대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아카데미.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vol.35 no.3.
-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vol.37 no.4.
- 방하남, 이성균. 1996. 신흥개발국에서의 구조변동과 세대간 계급이동: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한국사회학》 vol.30.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67-194.
-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vol.36 no.4.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vol.34 no.4.
- 장수명. 2002.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2권1호, pp.47-79.
- 한국교육개발원. 2007. 《2007년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기본통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Blau, P.M. and Duncan, O.D. 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Academic Press.
- Chang, Kyung-Sup. 2001. "Compressed Modernity and Korean Family: Accidental Pluralism in Family Ideology." *Journal of Asian-Pacific Studies*, number 9 (September 2001), pp.31-39.
- Duncan, G. & Brooks-Gunn, J.(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 Brooks-Gunn, J. 1997a. "Poor Families, Poor Outcomes" in Duncan, G. & Brooks-Gunn, J. 1997.
- Foster, J., J. Greer and E. Thorbecke. 1984.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52, 761-766.
- Kitagawa, E.M. 1964. "Standardized Comparisons in Population Research" *Demography* vol.1. no.1 pp.298-311
- \_\_\_\_\_, E.M.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50. pp.1168-94.
- Das Gupta, P. 1978. "A General Method of Decomposing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into Several Components" *Demography* vol.15 no.1, pp.99-109.
- Clogg, C.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Group Differences," in Rumsey, G.W.(ed.) *Readings in Population Research Methodology* vol.1.
- Hook, J., Brown, S.L. and Kwenda, M.N. 2004. "A Decomposition of Trends in Poverty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Demography* vol 41 no.4. pp.649-670.
- McLanahan, S. 1985.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4): 873-901.
- Oaxaca, Ronald.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October), pp.693-709.
- Gomulka, Joanna & Stern, Nicholas, 1990. "Th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the United Kingdom 1970-83," *Economica*,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57 no.226. pp. 171-99.

Rank, M.R. and Hirsch, T.A. 2001. "The Occurrence of Poverty across the Life Cycle: Evidence from the PSID."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20 no.4, pp.737-755.

Ishikura, M. 2007. "Globaliz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and growing income disparity in Japan,"

Picot, G. and Myles, J. 1996. "Social Transfers,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Low Income Among Children." *Canadian Public Policy*: vol.22 no.3.

<Abstract>

Has "Rush to Higher Education" Reduced Poverty in Korea?  
: Analysis on the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1985-2006

Kim, Su Jeong\*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poverty in South Kore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impact of rapid expansion of school attainment ("rush to higher education") on the poverty status for the last 20 years (1985-2006) using the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ividing the research period into two economically different times, I analyse the distribution effects and inequality effects of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each perio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poverty rates of all educational strata reduced in the first period but increased steep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second period.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0s enlarges the poverty gap between the education groups. Secondly, higher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scaping from poverty by changing the distributive effect of education.

However, in the second period eve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continues, poverty risk of all groups tend to increase, making relatively low-educated people more vulnerable. Inequality effects overwhelmed positive effects of the distribution changes. Thirdly, after the economic crisis, economic status of high school graduates are downfallen, converted them into the vulnerable

---

\* Professor, Donga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ksujeong@dau.ac.kr)

("Degradation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As for the university graduates, the distribution change hasn't impact much but their relative advantage has been shrunk by the strong impact of the increasing economic insecurity.

Key Words : rush to higher education, overeducation, poverty gap,  
distribution effect, inequality effect, poverty decomposition